

『三國遺事』〈孝善篇〉의 효윤리와 이념 지향

신태수*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효행 단계와 구성 원리
- III.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 지향
- IV. 이념 지향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삼국유사』〈효선편〉에는 다섯 편의 孝行說話가 실려 있다. 설화 다섯 편을 지배하는 구성 원리는 ‘孝善雙美의 미학을 추구하되 善에 더 역점 두기’이다. 이 구성 원리는 유교적 효와 불교적 선을 겸비한다는 의미로서, ‘효행-발복’ 구도로 표출된다. ‘효행-발복’ 구도는 효행을 하면 발복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발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효를 행하라고 압박한다. 한마디로 말해, ‘효행-발복’ 구도는 꽤나 이념적이다.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을 설화의 내용에 맞추어 정리해보면, ‘정성껏 효를 행하라! 언젠가 그대가 발복의 대상이 되리라!’가 된다. 『삼국유사』〈효선편〉에 이념이 이입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발복’을 통해 하층인의 位相이 높아진 현상이 그 첫 번째이고, 이념으로 인해 人間美를 상실한 현상이 그 두 번째이다. 둘은 각기 의의와 한계를 나타낸다. 즉, 전자는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 가지는 의의이고 후자는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 가지는 한계이다.

주제어 : 효행설화, 효선쌍미의 미학, ‘효행-발복’ 구도, 이념적, 하층인, 인간미의 상실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문제제기

『三國遺事』〈孝善篇〉에는 다섯 편의 효행설화가 실려 있다. 〈眞定師孝善雙美〉, 〈大成孝二世父母〉, 〈向得舍知割股供親〉, 〈孫順埋兒〉, 〈貧女養母〉가 그것이다. 각 효행설화는 서로 내용을 달리하되 불교와는 공통적으로 친연성이 깊다. 다수의 논자들이 〈향득사지할고공친〉은 유교적 내용만을 담았다고 하지만,¹⁾ 그렇지 않다. ‘할고공친’의 ‘공’이 ‘공양’을 의미하고 불교의 捨身供養을 연상시키기 때문에²⁾ 〈향득사지할고공친〉은 불교와 분명히 가깝다고 본다. 무엇보다 불교적인 성격이 뚜렷한 네 편의 설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 불교와의 친연성은 명약관하하다. 물론, 불교와 친연성이 있다고 해서 유교적 성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효윤리가 불교와도 친연성을 유지하고 유교와도 친연성을 유지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³⁾

불교와 유교가 함께 효윤리와 친연성을 가지되 충돌하지는 않는다. 유교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행동방식의 측면을 담당하고 불교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 전망의 측면을 담당하면서⁴⁾ 해당 설화의 구도를 형성하기

1) 대표적인 논문을 세 편 들기로 한다. 閔丙河, 『三國遺事に 나타난 孝善思想』, 『人文科學』3,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p.237.; 尹龍燦, 『新羅 孝子 向德과 그 遺蹟』, 『百濟文化』11,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78, p.53.; 李基白, 『新羅佛教에서의 孝觀念』, 『東亞研究』2,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3, p.34.

2)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pp.113-116 참조.

3) 정수동, 『유교와 불교의 효사상』, 『동아시아불교문화』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1, pp.259-285와 洪潤植, 『佛教의 孝觀』, 『韓國思想史學』10, 韓國思想史學會, 1998, pp.167-182 참조.

4) 李惠京, 『효문화의 생산과 『삼국유사』에서의 표현』, 『靑少年과 孝文化』18, 한국 청소년 효문화학회, 2011, p.92의 논의가 필자의 관점과 유사하다. 이 논문에서 儒佛思想이 〈효선편〉에 공존한다고 하며, 그 근거로서 믿음은 불교에서 담당하고 생활방식

때문에 충돌한다고 하기보다는 호응한다고 하는 편이 합당하다. 유교와 불교가 호응한 결과는 ‘효행 환경과 효윤리의 간극 줄이기’로 나타난다. 설화 속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효행 환경과 효윤리 사이에는 넓디넓은 간극이 있다, 효행 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데 비해 효윤리는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좁힐 수가 없다. 이 간극은 효행 주체의 극적 노력에 의해 일순간에 좁혀진다. 극적 노력이란 ‘효행 주체를 열악한 환경에서 일거에 벗어나게 하는 인간 최고의 정성’을 가리킨다. 이 극적 노력에 의해 효행 주체는 이전의 해묵은 존재를 탈각하고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극적 노력이 누구나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성을 어느 정도로 지닐지가 의문이다. 어느 설화에서든 효윤리는 효행 주체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효행 주체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다. 효행 주체와 효윤리 사이에 비현실적 국면이 조성되기도 하나, 그런 현상이 합리성의 결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행 주체의 노력이 꺾이고 절절해서, 비현실적 국면이 합리성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이런 현상을 ‘비현실적 국면의 합리성’⁵⁾이라 불러볼 만하다. 눈길을 끄는 바는 ‘효행 환경과 효윤리 사이에 놓인 효행 주체의 형상’이다. 효윤리가 이념으로 상승할 때 효행 주체의 형상이 일상인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비현실적 국면의 합리성’이 우발적으로 조성된다고 하기 어렵다. 즉, ‘비현실적 국면의 합리성’이 다섯 편 설화 모

은 유교에서 담당한다는 점을 손꼽았다.

5) 어떤 상황에서 비현실적 국면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합리성의 획득 여부가 판가름난다. 비현실적 국면이 등장인물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제시될 경우에는 합리성을 지니지 못하고, 비현실적 국면이 등장인물의 의식으로 인해 제시될 경우에는 합리성을 지닌다. 『삼국유사』<효선편>에 나타난 다섯 편의 설화는 후자에 속한다. 등장인물이 비경험적 세계에서 간취한 욕망을 경험적 세계에서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두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설화의 구성 원리가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비현실적 국면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설화의 구성 원리⁶⁾를 모색한 다음, 그 의의와 한계를 따져보고자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효행 환경과 효윤리 사이의 간극을 점검한다. 간극의 점점 작업이 치밀하면 할수록 효행의 전개 과정을 가늠하기가 용이하고, ‘비현실적 국면의 합리성’도 밝혀낼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효가 이념으로 상승하는 요인과 과정을 추적한다. 일반적으로 효는 생활규범의 성격이 강하지만, <효선편> 설화의 경우는 간단하지 않다. 처음에는 생활규범의 성격을 띠다가 점차로 존재법칙의 성격을 띠기 때문인데, 이 추이를 살펴서 효의 이념화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 이런 방법론을 구사할 때, 본고는 효행설화 내용의 소개 차원에 머물지 않고 효행설화 일반론 및 본질론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6) 지금까지 설화 전체의 지배 원리가 선명하게 논구된 적이 없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효선편>이라는 편명에 의거하여 ‘유불사상의 조화’를 언급하는 데서 그쳤다. 효행 주체의 성격과 효행 환경이 상이해서 설화 전체의 지배 원리를 찾기 못한 까닭이다. 연구방법을 보면, 불교적 성격이 짙은 <진정사효선쌍미>와 <대성효이세부모>를 하나로 묶고 불교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옅은 <향득사지할고공친>과 <순순매아>와 <빈녀양모>를 또 다른 하나로 묶어서 별도로 다루는 정도이니, 설화 전체의 지배 원리가 드러날 수 없었다. 제제의 이질성을 뚫고 들어가 효행과 효윤리의 관계망을 포착해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II. 효행 단계와 구성 원리

〈효선편〉설화의 효행 주체는 처음부터 거창한 효윤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효행은 일상적 차원이고 일생일대 과업 달성의 차원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상적 차원이라고 하면 凡人의 효행과 유사할 듯하나, 그렇지 않다. 범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계 범위에서 효행을 하지만, 〈효선편〉설화의 효행 주체는 효행 단계를 점차로 높여가다가 마침내 비현실적 국면으로 들어선다. 이럴 경우에 효행 주체가 합리적 차원의 범주를 벗어나는가? 효행 단계의 끝을 향해 나아갈 뿐이고, 합리적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 〈효선편〉설화 다섯 편 모두가 이런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구성 원리가 일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각 설화의 효행 단계를 점검하면서 구성의 특징을 찾아내고, 설화 전체의 구성 원리를 짚어보기로 한다.

〈진정사효선쌍미〉에서는 두 차례의 효행 단계가 나타난다. 진정이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홀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한다고 하는 내용이 제1단계이고, 집을 떠나 의상법사의 문도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제2단계이다. 제1단계의 효행은 흔하게 나타나지만, 제2단계의 효행은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2단계의 효행은 제1단계의 효행과는 달리, 형식논리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홀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심히 고민하면서도 끝내 집을 떠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형식논리를 깨뜨린 결과는 大孝이다. 7일간의 禪定으로 사망한 어머니를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환생하게 했으므로,⁷⁾ 불교적 시각으로 보아서는 최고의 봉양이 아닐 수가 없다. 일상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변뇌하면서도 어느 순간 형식논리를 벗어났다든 점에서, 일상적 차원의 끝은 곧 불교적 효행이라고 할

7) 해당 부분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我已生天矣”가 된다.

수 있다.

<대성효이세부모>에서는 두 차례의 효행 단계가 나타난다. 전생의 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한다고 하는 내용이 제1단계이고, 전생과 금생의 부모를 함께 지성으로 봉양한다고 하는 내용이 제2단계이다. 두 단계는 서로 이질적이다. 제1단계의 효행은 모든 효자에게 해당되지만, 제2단계의 효행은 일상적 차원이되 모든 효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전생과 금생의 두 부모를 모신다든가 두 부모를 위해 절을 짓는다든가 하는 사안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제2단계가 이례적인만큼 제1단계의 효행에서 나타나는 형식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죽은 자가 환생하고, 금생의 아들이 전생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이세에 걸쳐 부모가 둘이라는 설정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불교적 연기체험의 대상일 따름이다. 일상적 차원이면서 형식논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상적 차원의 끝은 곧 불교적 효행이라고 할 수 있다.

<향득사지할고공친>에서는 효행 단계가 불명확하다. 부친이 굶주리자 향득이 割股하여 봉양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부이다. 불명확하다고 해서 효행 단계를 추론하지 못할 것은 없다. 향득설화가 『삼국사기』열전의 <향덕전>에도 실려 있어서⁸⁾ <향득사지할고공친>의 효행 단계를 짚어보기에 유용하다. <향덕전>에 의하면, 향덕은 평소에 지극히 효순했고, 흉년에 부모가 굶주리자 할고하여 먹었다고 한다. 할고 행위는 신체를 훼손해야 하므로 세속적 윤리로서는 불효인데,⁹⁾ 이 불효 행위가 효성으로 인식되므로

8) 『삼국사기』에는 향득고사가 <신라본기>와 열전<향덕전>에 나란히 실려 있다. 인명의 ‘득’이 ‘덕’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동일인물임에 틀림없다. <신라본기>의 경우는 <향득사지할고공친>만큼이나 소략하고 열전<향덕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었다. 열전<향덕전>의 경우와는 달리, <신라본기>의 경우는 효행 단계를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9) “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孝經』開宗明義 章第1)”에 의거함

형식논리의 타파이다. 이 내용을 통해 효행 단계를 추론해보면, 평소에 효순했다는 내용이 제1단계의 효행이고 할고 행위로 형식논리를 타파한다는 내용이 제2단계의 효행이다.¹⁰⁾ ‘할고공친’이 일상적 차원에서 거행된 사신공양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일상적 차원의 끝이 곧 불교적 효행이라고 할 수 있다.

<손순매아>에서는 세 차례의 효행 단계가 나타난다. 손순 부부가 품팔이를 해서 노모를 봉양했다는 내용이 제1단계의 효행이고, 자식을 죽이고 노모를 살리려고 했다는 내용이 제2단계의 효행이고, 옛집을 절로 만들어서 지효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그 절에 기이한 석종¹¹⁾을 매달아놓았다는 내용이 제3단계의 효행이다. 제1단계와 제2단계와 제3단계의 효행은 서로 격이 다르다. 일상적 차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제1단계의 효행과는 달리, 제2단계의 효행과 제3단계의 효행은 일상적 차원이기는 하되 그리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자식을 제치고 어머니를 절대적 위치에 올려놓기가 쉽지 않고 보물과도 같은 석종을 절에 회사하기가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3단계의 효행은 대외적 성격이 강해 서민인 손순에게 벅차다고 볼 때, 일상적 차원의 가장 어려운 과제가 곧 불교적 효행이라고 할 수 있다.

때, 유학적 관점에서는 할고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0) 『삼국사기』열전의 <항덕전>에 의거하지 않아도 효행 단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위급한 순간에 할고해서 먹었다고 했으니, 항덕이 평소에도 효행을 발휘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평소의 효행했다는 내용을 제1단계의 효행이라고 하면, 할고해서 먹었다는 내용은 당연히 제2단계의 효행이 된다.

11) 손순이 땅속에서 얻은 석종을 들보에 매달아놓자 종소리가 대궐의 흥덕왕에게까지 들렸다고 한다. 흥덕왕이 종소리를 듣고 손순의 효행을 알게 되었으니, 종소리가 손순의 효행을 알린 셈이 되었다. 석종이 특이한 기능을 하므로 기이하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석종의 기능에 대해서는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I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p.144와 金相鉉, 「三國遺事 孝善篇 檢討」, 『東洋學』30,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2000, p.164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빈녀양모>에서는 세 차례의 효행 단계가 나타난다. 빈녀가 밥을 빌어 눈먼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내용이 제1단계의 효행이고, 어머니의 배만 불리고 마음은 편하게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내용이 제2단계의 효행이고, 자기 집을 절로 만들어서 부처의 加被가 어머니에게 이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3단계의 효행이다. 제1단계의 효행은 효녀로서의 최소 조건에 해당되고 제2단계의 효행과 제3단계의 효행은 최소 조건을 훌쩍 넘어선다. 일반적으로 배부르게 먹도록 하면 효도를 다했다고 여기거나 자기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제3단계의 효행은 제2단계의 효행보다 어렵다. 빈녀가 집을 절로 만들었으니, 모든 것을 다 내놓을 만큼 어머니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제3단계의 효행이 일상적 차원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 차원의 끝이 바로 불교적 효행이라고 할 수 있다.

<효선편>설화 다섯 편의 효행 단계를 각기 검토해보니, 일치되는 바가 적지 않다. 효행 단계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제1단계의 효행은 효자 내지 효녀의 최소 조건을 나타낸다는 점, 마지막 효행 단계에서는 예외없이 불교적 효행이 구현된다는 점, 불교적 효행은 형식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 국면을 지닌다는 점, 비현실적 국면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적 차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일치되므로, 공통점이 무려 다섯 가지이다. 각 설화의 서술 분량이 그다지 길지 않은 상태에서 다섯 가지의 공통점을 나타낸다면, 결코 우발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해, 특정 원리가 다섯 편의 설화를 균일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설화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의문이다. 공통점 다섯 가지를 역추적하면 의문은 의외로 손쉽게 풀린다.

- A. 전반부에서는 유학적 효행을 표출하고 후반부에서는 불교적 효행을 표출한다.
- B. 불교적 효행을 일상적 차원에서 구현하되 효행 주체의 적극 노력을 강조한다.

A와 B는 구성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정리한 결과이다. A는 ‘孝와 善의 병치 현상’을 가리킨다. 전반부에서는 부모에 대한 세속적 도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부처에 대한 종교적 선행을 다루므로,¹²⁾ 한꺼번에 묶어 ‘孝善雙美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효선쌍미의 미학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효선쌍미의 미학이 나타나도록 인물과 사건을 구성했다는 의미가 된다. B는 ‘불교적 효행의 치중 현상’을 가리킨다. 세속적 도리로서의 효행도 중요하지만, 불교적 효행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가능하다. 불교적 효행에 대한 서술이 작품마다 많지는 않지만, 불교적 효행이 세속적 효행 즉 유학적 효행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 효행 단계의 마지막에 불교적 효행이 놓인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A와 B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면 구성 원리가 도출된다. ‘효선쌍미의 미학을 추구하되 선에 더 역점 두기’가 그것이다.

‘효선쌍미의 미학을 추구하되 선에 더 역점 두기’라는 구성 원리는 철저하게 <효선편>설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지배력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세속적 효행과 불교적 효행의 관계를 눈여겨보면 지배력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세속적 효행과 불교적 효행은 ‘효행’을 공통분모로 하여 각기 小孝와 大孝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즉, 소효를 떠나 대효로 나아갈 수 없고 대효 없이 소효만으로 멈출 수 없다. 대효란 자식이 부모를 고통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12) 이기백, 앞의 논문, pp.30-32 참조.

이끄는 행위¹³⁾로서, 모든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규정짓는 존재법칙이다. 대효가 존재법칙으로서 당위성을 지니면서 생활규범에서 그치는 소효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대효가 효행 주체를 이끌어서 소효를 넘어서게 한다. 구성 원리가 철저하게 <효선편>설화 전체를 지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구성 원리가 <효선편>설화 전체를 지배한다고 할 때, 간과하지 못할 의문점이 생긴다. ‘효행 단계가 왜 어떤 설화에서는 두 개이고 어떤 설화에서는 세 개인가?’가 그것이다. 구성 원리의 ‘효선쌍미의 미학 추구하기’와 ‘선에 더 역점 두기’가 문제 해결의 단서이다. <진정사효선쌍미> · <대성효이세부모> · <항득사지할고공친>은 ‘효선쌍미의 미학 추구하기’가 ‘선에 더 역점 두기’의 의의까지 지니고 <손순매아> · <빈녀양모>는 ‘효선쌍미의 미학 추구하기’가 곧장 ‘선에 더 역점 두기’의 의의를 지니지는 않는다. 전자는 두 개의 단계이고 후자는 세 개의 단계이니, 결국 두 개 혹은 세 개의 단계는 구성 원리의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구성 원리의 핵심은 ‘선에 더 역점 두기’이다. ‘선에 더 역점 두기’를 강조함으로써 일상적 차원의 극단적 효행이 바로 불교적 효행¹⁴⁾이라는 논법이 가능해진다.

13) 정수동, 앞의 논문, p.282 참조

14) 김기섭, 『신라 흥덕왕대 손순의 효를 통해 본 ‘표창’의 의미』, 『한국 중세사회의 제문제』, 한국중세사학회, 2001, p.416에서는 『삼국유사』<효선편>의 불교적 효행이 『삼국사기』기록에 없다고 하면서 일연이 유교로부터의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교적 효행을 덧입혔으리라고 본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나, 설화 전체의 구성 원리에 입각하면 그런 논의에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의 기록에 불교적 효행을 덧입혔다고 할 수 없고, 설화 전체의 구성 원리에 의해 불교적 효행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Ⅲ.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 지향

불교적 효행의 결과는 복덕이다. <진정사효선쌍미>와 <대성효이세부모>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禪定으로 모친을 극락에 인도하거나 一身으로 二世 부모를 편히 모시니 무상의 공덕이 아닐 수 없다. <향득사지할고공친>·<손순매야>·<빈녀양모>의 경우에는 일견 유교적 포상제도가 부각되지만,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되 설화 전체에는 불교적 관점이 녹아 있으므로, 포상 결과를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온당하다. 불교적 관점에서 포상 결과를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 복덕이나 포상이 효행의 전제이고 과보가 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발복’이라고 지칭해볼 수 있다. 발복에는 유교적 성격도 담긴 바이므로, ‘효행-발복’의 구도를 살피면서 발복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1. ‘발복’의 전제 조건

<효선편>설화의 발복모티프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 뒷받침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효행 환경이 극심하게 열악하다는 점과 효행 주체가 부모를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과 효행 주체가 자기의 소중한 것과 부모에 대한 효를 맞바꾼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섯 편의 설화 모두에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균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만 같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의 조건은 정치권과도 관련이 깊고 불교권과도 관련이 깊다. 정치권과 불교권에서 동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세 가지 조건에 담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세 가지의 조건에다 순차적으로 A, B, C를 부여

하고, 정치권과 불교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요인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 A. 환경 -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 B. 자세 - 효행 주체는 부모를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는다.
- C. 방법 - 효행 주체는 자기의 소중한 것과 부모에 대한 효를 맞바꾼다.

A는 효행 주체의 환경을 나타낸다. <진정사효선쌍미>의 진정은 출가 이전에는 군졸이었다. 집이 가난하여 부역과 품팔이를 했으니, 직급이 낮고 급료도 적다. <대성효이세부모>의 김대성은 품팔이를 해야 할 정도로 살림이 궁핍했다. 그 어머니가 과부로서 평민이었으니, 김대성의 신분과 계층 또한 어머니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향득사지할고공친>의 향득은 너무나 가난하여 할고로 아버지를 봉양한다. 4두품¹⁵⁾으로서 할고에 의존하므로, 궁핍하기가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손순매아>의 손순과 <빈녀양모>의 여인은 품팔이를 해서 노모를 봉양한다. 품팔이를 해야 노모를 봉양할 수 있으니, 신분과 계층이 높지 않다. 설화 다섯 편의 효행 주체는 계층이 낮고 신분도 낮다. 결식하고 품팔이하며 자기 신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열악한 환경은 한미한 신분·계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B는 효에 대한 효행 주체의 자세를 나타낸다. <진정사효선쌍미>의 진정은 어머니를 무조건 따른다. 어머니가 술을 시주해도 잘했다고 하고 집을 떠나라고 하자 곧장 집을 떠난다. <대성효이세부모>의 김대성은 모든 힘을 쏟아 부어 절을 짓는다. 이세의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온 힘을 쏟아부

15) 김수태, 앞의 논문, p.104에 의하면 4두품은 王京 소재의 평민 신분이라고 한다. 일반 백성과 그리 다를 바 없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 尹龍燦, 앞의 논문, p.48에서는 너무나 빈한한 형편이어서 향덕이 과연 4두품의 관위를 지니거나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한다.

게 했다. <향득사지할고공친>의 향득은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의 목숨을 더 중하게 여긴다. 할고가 곧 그 증거이다. <손순매아>의 손순은 자식보다 부모를 중하게 여긴다. 자식을 땅에 묻으려 하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빈녀양모>의 여인은 자신의 몸보다 어머니가 더 중하다고 여긴다. 자신의 몸을 판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어느 설화를 보더라도 효행 주체와 부모 사이에는 전혀 틈새가 없다. 효행 주체는 효윤리이고 효윤리는 효행 주체이니, 하등의 틈새 없는 상태가 부모를 절대적 위치에 올려놓은 요인이 된다.

C는 효행 구현의 방법을 나타낸다. 효행 주체가 효행 방법을 스스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을 통해서만 효행 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 <진정사효선쌍미>의 진정은 어머니의 부고를 접한 뒤 7일간 선정에 든다. 선정은 육신을 버려 삼매경에 드는 儀式인데, 이 선정으로 어머니를 극락으로 보낸다. <대성효이세부모>의 김대성은 사재를 털어 불사 공덕을 한다. 큰 절 두 개를 건축하려면 아낌이 없어야 할 터이니, 목숨 이외의 전부를 쏟아부었다고 보아야 한다. <향득사지할고공친>의 향득은 허벅다리살을 아버지께 바쳤고, <손순매아>의 손순은 자식을 포기하고자 했고, <빈녀양모>의 여인은 자기 몸을 팔았으니, 각기 가장 소중한 것을 효와 맞바꾼 셈이다. 다섯 편 설화의 효행 주체는 '희생효 정신'을 철저히 가졌는데, 비밀상적이고 극단적인 효행 방법은 바로 이 희생효 정신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A~C 가운데서 B와 C¹⁶⁾가 발복의 핵심 조건이다. A는 발복의 가치를 좌우하는 요인이기는 해도 핵심 조건과는 거리가 있다. 핵심 조건과 거리

16) 김현정, 「고대 孝行談과 여성」, 『祥明史學』13·14, 祥明史學會, 2008, pp.53-55에서 는 효행 주체의 자세와 방법이 어머니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는 관점을 보인다. 경청 할 만한 내용이라 여겨진다.

가 있다고 해서 발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B와 C가 A로 인해 작동하기도 하고 세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므로, A가 핵심 조건은 아니어도 발복의 조건과 연관은 있다. 발복의 핵심 조건은 아니면서 발복의 조건에서 배제될 수는 없으므로, 발복의 부수 조건으로 지칭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결국, 발복의 부수 조건인 A와 발복의 핵심 조건인 B와 C가 어우러져서 발복의 가치를 드높인다고 보면 된다. 발복의 부수 조건과 발복의 핵심 조건이 설화 다섯 편에 나타나는 이유는 이로써 분명해진다. 효행 주체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투철한 효행 자세와 적극적인 효행 방법으로 효윤리를 구현했다고 하기 위해 설화 다섯 편에 A~C를 집어넣었다고 할 수 있다.

2.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적 성격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투철한 효행 자세와 적극적인 효행 방법을 구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언급은 나올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을 먼저 도모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열악한 환경이 우선 해소되어야 부모를 향한 효행 자세와 효행 방법도 나올 수 있다. 『삼국유사』〈효선편〉에서는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효행 환경이 발복의 부수 조건이고 효행 자세와 효행 방법이 발복의 핵심 조건이므로, 효행 자세와 효행 방법이 우선이 된다. 실제로 주목해야 할 효행 환경은 오히려 발복의 부수 조건으로 떨어져 있다. 상식이 전도된 형태가 『삼국유사』〈효선편〉이라고 볼 때, 왜 『삼국유사』〈효선편〉에서는 상식을 전도시켰는지를 캐보지 않을 수 없다.

논점을 다지기 위해서는 『삼국유사』〈효선편〉에 나타난 효행 주체의 인식이 어떤지를 확인볼 필요가 있다. 어느 효행 주체든 부모를 절대적 존재

로 여긴다.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효를 행하고, 자신이 가진 모두를 쏟아 붓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그런 인식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알기 어렵지만, 두 가지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다. 부모와 자식을 주종관계로 설정하는 가족제도 때문¹⁷⁾이기도 하고 자식에게 효를 행하라고 하는 사회적·문화적 압력 때문¹⁸⁾이기도 하겠는데, 두 가지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절대왕권시대에는 충에 대한 도리만큼이나 효에 대한 도리가 강조되었으니, 그런 분위기를 반영했던 것 같다. 편작자 일연은 승려이되 國師로서 평소부터 효윤리를 통해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자 했다가 『삼국유사』〈효선편〉에다 자신의 지론을 구체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삼국유사』〈효선편〉에는 효행모티프도 있고 발복모티프도 있다. 효행모티프와 발복모티프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의미망을 ‘효행-발복’ 구도라고 할 때, ‘효행-발복’ 구도는 다분히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다. 효행만 하면 발복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발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효를 행하라고 압박한다. 효를 행하고자 하는 자라면 효행 자세를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가져야 하는지, 또한 효행 방법을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게 된다.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효선편〉설화의 효행 주체에게서 나타난다. 〈효선편〉에서는 효행 주체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을 헤쳐나가 발복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효행-발복’ 구도를 고착화한다. 고착화의 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효행-발복’ 구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성을 믿음으로 현실을 환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17) 조은상, 『『삼강행실도』와 효자전에 나타난 자기 파괴적 효행의 심리』, 『겨레어문학』 26, 겨레어문학회, 2001, p.174 참조

18) 정운채, 『효자전에 나타난 사대부의 효와 그 심리적 특성』, 『인문과학논총』 34,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pp.58-59 참조

진다.

‘효행-발복’ 구도가 만들어내는 이념이 타당하다고 인식되었는지가 의문이다. 대답은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이념이 현실에서 통용되기 어려우니 우리는 의구심이 그 한 가지다. 이 부류에 속하는 자는 효행과 발복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 여긴다. 가진 바를 전부 쏟아부은 효행 주체에게 마지막 남게 되는 선택은 죽음뿐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¹⁹⁾ 이념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한다는 믿음과 환상이 그 다른 한 가지다. 이 부류에 속하는 자는 효윤리를 천륜이라 믿고 눈앞의 발복에 얽매일 수 없다고 여긴다. 하늘에서 공평무사하게 효행을 매겨 발복을 부여하므로, 당대에 복락이 오지 않으면 후대에는 어떤 형태로든 복락이 도래하리라고 믿는다. 전자와 후자는 서로 다른 논리로 충돌한다. 한 쪽만 살아남고 다른 한쪽은 폐기될 듯하나, 의외로 양쪽의 논리는 엇박자를 내면서도 살아남는다.

두 가지 논리는 『삼국유사』가 집필된 당시에도 이미 논란거리였던 것 같다. 金富軾, 『三國史記』48, 聖覺傳 附 史論에서 그런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김부식은 韓愈가 희생효를 ‘손상 절명의 죄’로 규정했다고 소개하면서 한유의 관점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²⁰⁾ 김부식이 전자를 대표하고 일연은 후자를 대표한다고 할 때, 어느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 가령, 현실주의적 관점에 서면 전자가 옳다고 할 터이고, 이상주의적 관점에 서면 후자가 옳다고 할 터이다. 일연은 후자를 택한 데서 그치지

19) 가령, 할고를 한 자는 다음에 또 할고를 해야 할 터인데, 할고의 위험성이 높아 종래는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할고하다 죽음에 이르면 오히려 불효가 된다. 손상 절명의 죄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20) 해당 원문을 인용해 본다. “論曰 宋祁唐書云 善乎韓愈之論也 曰父母疾烹藥餌 以是爲孝 未聞毀支體者也 苟不傷義 則聖賢先衆而爲之 是不幸因而且死 則毀傷滅絕之罪有歸矣 安可旌其門以表異之”가 그것이다.

않았다. ‘효행-발복’ 구도에 이념을 담아 『삼국유사』<효선편>에 집어넣었다. 『삼국유사』<효선편>에 들어간 “효행-발복” 구도는 끝없이 독자에게 이념을 퍼뜨린다. ‘정성껏 효를 행하라! 언젠가 그대가 발복의 대상이 되리라!’가 그것이다. 발복의 대상이 어느 때 된다는 기약도 없지만, ‘효행-발복’ 구도를 신뢰하는 독자는 행복하다. 이념에 마비되어 낙관적 전망만을 지니기 때문이다.

IV. 이념 지향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

일연은 『삼국유사』<효선편>에 이념을 붙여넣음으로써 무엇을 표출하려 했을까? 설화 이전의 역사적 사실과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을 견주어 보면 의문이 풀릴 전망이다.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적출해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성효이세부모> · <향득사지할고공친> · <빈녀양모>의 역사적 사실은 문헌에 전하므로, 역사적 사실과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을 손쉽게 견줄 수 있다. 한편, <진정사효선쌍미> · <손순매아>의 역사적 사실은 문헌에 전승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해법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전체 내용에서 이념의 근거가 되는 믿음과 환상을 제거해 버리면 애초의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적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작업을 통해 『삼국유사』<효선편>이 무엇을 드러내려 했는지를 추적해보기로 한다.

1. ‘발복’을 통한 하층인의 위상 제고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은 효행 주체의 위상을 높여준다. 효행 주체가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을 구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발복이 도래하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물론, 설화에 따라 발복의 성격이 다르고, 그런 발복의 성격에 따라 이념의 성격 또한 달라진다. <진정사효선쌍미>는 발복이 私的 次元이어서 이념 또한 사적 차원이고, <대성효이세부모>·<향덕사지할고공친>·<손순매아>·<빈녀양모>는 발복이 공적 차원이어서 이념 또한 公的 次元이다. 전자는 꿈속에서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을 구현²¹⁾하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후자는 대대적인 복덕이나 포상에 입각해서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어느 쪽이건 간에 효행 주체의 위상은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승한다.

이념이 효행 주체의 위상을 높인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대성효이세부모>의 역사적 사실은 <寺中記>·<佛國寺古今創記>에 담겨 있다.²²⁾ 이 자료에는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했다고 하는 내용만이 나타난다. <향덕사지할고공친>·<빈녀양모>의 역사적 사실은 『삼국사기』<향덕전>·<효녀지은>에 담겨 있다.²³⁾ 이 자료에서는 효행과 포상의 내용이 나오되 이념이 나온다거나 부모를 절대가치로 여기지는 않는다. <진정사효선쌍미>·<손순매아>의 역사적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지

21) 진정의 꿈에서 진정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이 환생했다고 하므로, 어머니의 환생 사실은 진정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22) 李萬, 『佛國寺 建立의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8,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7, pp.9-14와 金南允,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8,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7, pp.31-49 참조

23) 『삼국유사』<향덕사지할고공친>의 향덕과 『삼국사기』<향덕전>의 향덕은 동일인물이지만, 『삼국유사』<빈녀양모>의 빈녀와 『삼국사기』<효녀지은>의 지은이 동일인물 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다. 동일인물이 아니고 동일유형의 인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일인물이 아니라 동일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지은을 통해 빈녀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만, 믿음과 환상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다. ‘승려 진정이 죽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다’는 내용과 ‘자식 대신 어머니를 택한 손순의 효행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니, 역사적 사실은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효행 주체의 위상을 높이지도 않는다.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 효행 주체의 위상을 높인다고 할 때, 과연 효행 주체의 위상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지가 관심사이다. 효행 주체의 삶이 밑바닥에서 최상층으로 상승한다면 아주 높아진다고 할 터인데, 『삼국유사』〈효선편〉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설화 다섯 편의 효행 주체는 모두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신분과 계층도 낮다. 열악한 환경이나 계층이 신분에서 비롯되므로, 신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향득사지할고공친〉의 향득을 제외하고 그 이외 설화의 효행 주체는 신분이 아주 낮다. 향득은 사지 관등이어서 낮기는 하되 아주 낮다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그 이외의 효행 주체는 천민에 가까운 평민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효행으로 세상에 명성을 알리고 임금으로부터 포상을 받으니, 그야말로 ‘위상의 수직 상승’이라 부를 만하다.

‘위상의 수직 상승’은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 부여하는 달콤한 선물이다. 『삼국유사』에는 ‘위상의 수직 상승’ 현상이 몇 차례 나타난다. 二人成佛說話인 〈南白月二聖〉·〈廣德嚴莊〉·〈包山二聖〉²⁴⁾과 解脫說話인 〈善律還生〉·〈郁面婢念佛西昇〉·〈二惠同塵〉·〈蛇福不言〉²⁵⁾이 그 예이다. 이인성불담에서는 하층인이 도반을 형성해서 득도의 경지에 이

24) 신태수, 『三國遺事』〈南白月二聖〉의 서술층위와 인물층위, 『국학연구논총』13, 태민국학연구원, 2014, pp.1-29 참조

25) 박순애, 『삼국유사』해탈설화에 나타난 하층인의 형상, 『大東漢文學』39, 大東漢文學會, 2013, pp.221-244 참조

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해탈설화에서는 하층인이 상층인도 오르지 못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성불설화와 해탈설화는 하층인이 득도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므로, 효행만 하면 발복에 이른다라는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과 매우 흡사하다. ‘위상의 수직 상승’ 현상에 비추어,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을 손질해볼 수도 있다. 손질한다면 “효행 주체의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지효를 하면 누구나 발복의 대상이 되리라!” 정도일 것 같다.

이렇게 보니, ‘위상의 수직 상승’ 현상과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 ‘위상의 수직 상승’ 현상으로 인해 구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위상의 수직 상승’ 현상이 보편적이었던가? 그렇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하층인이 상층인과 동등한 위상을 누리지 못했으니, ‘위상의 수직 상승’ 현상은 드문 사례라고 해야 옳다. 평등을 외치는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차별과 구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²⁶⁾을 고려할 때, ‘위상의 수직 상승’ 현상은 차라리 환상적 전망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하층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층인처럼 높아질 수 없다고 해야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 이 점에 의거하면 환상적 전망에는 이중적 인식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하층인에게 희망을 준다는 인식이 그 한 가지요, 환상이 아니고서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인식이 그 다른 한 가지다.

2. 이념으로 인한 인간미의 탈각

끼니를 때울 양식조차 지니지 못한 사람이 부모를 배부르고 따뜻하게 하기는 어렵다. 효가 절대가치이어서 물리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선택할

26) 『삼국유사』〈郁面婢念佛西昇〉이 바로 그런 사례이다. 아간 귀진은 불교 신자이지만, 차별·구별의식을 철저하게 가졌다. 옥면이 절에서 엽불하자 계집종이 주인과 같이 엽불한다고 못마땅해 하며 엽불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사안은 자기희생뿐이다. 누구나 가벼운 희생쯤은 감수하고자 할 터이지만, 무거운 희생을 각오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삼국유사』〈효선편〉의 효행 주체는 무거운 희생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효윤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비장해질 수밖에 없다. 효행 주체가 자기희생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머뭇거리는 기색은 전혀 없고 당당하거나 저돌적이다. 당당하거나 저돌적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당하거나 저돌적인 태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효행 주체의 자세와 효행 방법을 되짚어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당당하거나 저돌적인 태도는 <향덕사지할고공친>과 <손순매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향덕사지할고공친>의 향덕은 아버지를 위해 할고한다. 할고 행위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²⁷⁾ 머뭇거리게 마련이지만, 그런 모습은 감지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당하게 할고하기 때문에, 마치 남에게 맡겨놓은 고기를 찾아오거나 푸줏간에서 고기를 사오는 듯한 모습이 연상된다. <손순매아>의 손순은 어머니를 위해 자식을 땅에 묻고 자 한다. 자식을 버리려면 인간적 고통을 느끼게 마련인데, 손순에게는 그런 모습이 감지되지 않는다. 자식을 업고 산에 가서 곧 바로 땅을 파기 때문에 사뭇 저돌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모습을 기준으로 여타 설화의 효행 주체를 판단해볼 수 있다. <진정사효선쌍미>의 진정은 당당하고 <대성효이세부모>의 김대성은 당당하면서도 저돌적이고 <빈녀양모>의 빈녀는 당당하다.

효행 주체의 태도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향덕사지할고공친>·<빈녀양모>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향덕전>·<효녀지은>에서는 인

27) 任明玉, 『中國 割股 孝行故事 小考』, 『中國學論叢』9, 韓國中國文化學會, 2000, pp.219-220에는 할고하다 죽는 사례를 『明史』302에서 찾고 있다. 중국의 사례이지만, 한국의 경우라고 해서 이런 사고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간적 정취가 풍긴다. <향덕전>에서는 향덕이 정성을 다해 부모를 위안하다가 마침내 할고한다고 했고, <효녀 지은>에서는 지은이 홀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마침내 자신을 종으로 판다고 했다. 향덕과 지은이 최종 결단을 내리기까지 머뭇거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했을 것 같다. <대성효이세 부모>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사증기>·<불국사고금창기>에서는 김대성이 불사공덕을 하기까지 겪었을 머뭇거림이나 고통이 희미하게나마 감지된다. <진정사효선쌍미>·<손순매아>의 경우는 분명치 않지만 믿음과 환상을 제거하면 머뭇거림이나 고통이 컸을 것 같다.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니, 효행 주체는 당당하거나 저돌적이지 않고 인간적 정취를 흠뻑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효선편>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해보면, 『삼국유사』<효선편>의 효행 주체는 당당하고 저돌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나타난 효행 주체는 머뭇거리거나 고통을 겪는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삼국유사』<효선편>이 형성되었다고 볼 때, 『삼국유사』<효선편>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머뭇거리거나 고통을 겪는 효행 주체를 당당하고 저돌적으로 바꾸어놓았다. 당당하거나 저돌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다.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은 효행 주체로 하여금 부모를 절대적 존재로 여기게 하고 부모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맡게끔 한다. 효행 주체는 이념을 이끌지 못하고 이념에 이끌려간다. 그 결과, 한 가지는 얻는 대신, 다른 한 가지는 잃었다. 숭고한 인물이 되기는 했어도 인간적 정취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서사문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삼국유사』<효선편>에 나타난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은 의의와 한계를 지닌다. 하층인도 서사의 주인공으로 의젓하게 등장한다는 점과 효행설화 및 효행소설에서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과 상층인뿐만 아니라 하층인도

승고한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효행 주체가 필연적인 계기 없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분위기를 이탈해서 일방적으로 효를 행한다고 한 점은 한계이다. 의의는 많고 한계는 적지만, 한계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효행 주체와 이념의 관계를 단단히 묶으면 묶을수록 한계의 범주가 더욱 더 커지리라는 우려를 주기 때문이다. 효행 주체와 이념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배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때, 편작자 일연은 『삼국유사』<효선편>을 통해 서사문학사에 큰 과제를 던진 셈이 되었다.

V. 결론

『삼국유사』<효선편>에는 다섯 편의 효행설화가 실려 있다. 설화 속을 들여다보면 효행 환경과 효윤리 사이에 간극이 있으나, 양자의 간극은 비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국면 속에서 일순간에 좁혀진다. 이런 현상을 ‘비현실적 국면의 합리성’이라 할 때, ‘비현실적 국면의 합리성’은 설화 모두에서 나타난다. 설화의 구성 원리가 일정하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비현실적 국면의 합리성’의 실체를 파헤치고 설화의 구성 원리를 모색하고자 했다.

효행설화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효행 단계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고, 제1단계의 효행은 효행 주체의 최소 조건을 나타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외없이 불교적 효행이 구현되고, 불교적 효행은 비일상성 내지 기이성을 지니고, 비일상성 내지 기이성이 일상적 차원의 범주에서 구현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공통점이 이처럼 많다면, 다섯 편의 설화를 균일하게 지배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孝와 善의 병치 현상’과 ‘불교적 효행의 치중 현상’을 고려하면, 구성 원리는 ‘효선쌍미의 미학을 추

구하되 선에 더 역점 두기'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 복덕이나 유교적 포상을 발복이라 할 때, 발복의 조건은 세 가지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효행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과 효행 주체가 부모를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과 효행 주체가 자기의 소중한 것과 부모에 대한 효를 맞바꾼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첫째 번은 발복의 부수 조건이고 둘째번과 셋째번은 발복의 핵심 조건이다. 발복의 부수 조건과 발복의 핵심 조건이 설화 다섯 편에 나타나는 이유는 효행 주체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투철한 효행 자세와 적극적인 효행 방법으로 효윤리를 구현했다고 하기 위함이다.

효행모티프와 발복모티프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의미망을 '효행-발복' 구도라고 부를 수 있다. '효행-발복' 구도는 효행만 하면 발복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발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효를 행하라고 압박한다. 한마디로 말해, '효행-발복' 구도는 꽤나 이념적이다. 설화의 내용에 맞추어 이념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성껏 효를 행하라! 언젠가 그대가 발복의 대상이 되리라!"가 된다. 선동적이면서도 압박하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효행-발복' 구도 속으로 들어간 효행 주체라면 누구나 이성을 믿음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환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일연은 『삼국유사』〈효선편〉에 이념을 불어넣음으로써 무엇을 표출하려 했을까? 설화 이전의 역사적 사실과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을 견주어 보면 의문이 풀린다. '발복'을 통한 하층인의 위상 제고가 그 첫 번째이고, 이념으로 인한 인간미의 탈각이 그 두 번째이다. 전자는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 가지는 의의이고 후자는 '효행-발복' 구도의 이념이 가지는 한계이다. 의의는 많고 한계는 적지만, 한계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효행 주체와 이념 가운데서 이념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한계가 생긴다고 볼 때, 일연은 서사문학사에 큰 과제를 던진 셈이 되었다.

【참고문헌】

-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I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p.144.
- 김기섭, 『신라 흥덕왕대 손순의 효를 통해본 ‘표창’의 의미』, 『한국 중세사회의 제문제』, 한국중세사학회, 2001, p.416.
- 金南允,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8,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7, pp.31-49.
- 金相鉉, 『三國遺事 孝善篇 檢討』, 『東洋學』30,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2000, p.164.
-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사지’ 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pp.113-116.
- 김현정, 『고대 孝行談과 여성』, 『祥明史學』13·14, 祥明史學會, 2008, pp.53-55.
- 閔丙河, 『三國遺事に 나타난 孝善思想』, 『人文科學』3,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p.237.
- 박순애, 『『삼국유사』 해탈설화에 나타난 하층인의 형상』, 『大東漢文學』39, 大東漢文學會, 2013, pp.221-244.
- 신태수, 『『三國遺事』<南白月二聖>의 서술층위와 인물층위』, 『국학연구논총』13, 태민국학연구원, 2014, pp.1-29.
- 尹龍燦, 『新羅 孝子 向德과 그 遺蹟』, 『百濟文化』11,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78, p.53.
- 李基白, 『新羅佛敎에서의 孝觀念』, 『東亞研究』2,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3, p.34.
- 李 萬, 『佛國寺 建立의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8,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7, pp.9-14.
- 李惠京, 『효문화의 생산과 『삼국유사』에서의 표현』, 『靑少年과 孝文化』18, 한국 청소년 효문화학회, 2011, p.92.
- 任明玉, 『中國 割股 孝行故事 小考』, 『中國學論叢』9, 韓國中國文化學會, 2000, pp.219-220.
- 정수동, 『유교와 불교의 효사상』, 『동아시아불교문화』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1, pp.259-285.
- 정운채, 『효자전에 나타난 사대부의 효와 그 심리적 특성』, 『인문과학논총』34,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pp.58-59.

조은상, 『『삼강행실도』와 효자전에 나타난 자기 파괴적 효행의 심리』, 『겨레어문학』
26, 겨레어문학회, 2001, p.174.

洪潤植, 『佛敎의 孝觀』, 『韓國思想史學』10, 韓國思想史學會, 1998, pp.167-182.

Abstract

The Filial Ethic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Hyoseonpyeon of *Samgukyusa*

Shin, Tae-Soo

There are five tales of filial behavior in the Hyoseonpyeon of *Samgukyusa*. The dominant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he five tales is to “pursue the aesthetics of Hyoseonssangmi with more emphasis on Seon.” The organizational principle signifies the combination of Confucian filial duty and Buddhist Seon and is manifested in the structure of “filial behavior–favorable change in fortune,” which states that one can see a favorable change in his or her fortune by performing filial behavior and presses him or her to perform filial duty without any conditions to see such a change. In a word, the structure is very ideological. When considere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ales, the ideology states “Perform filial duty with your utmost sincerity, and you will see a favorable change in your fortune someday!” What phenomena took pla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deology to the Hyoseonpyeon of *Samgukyusa*? First, the status of the lower class was raised through a “favorable change in fortune.” Secondly, the ideology got rid of humanity. The two represent significance and limitation, respectively. That is, the former represents the significance of “filial behavior–favorable change in fortune” ideology, whereas the latter does the limitation of the ideology.

Key Word : tales of filial behavior, the aesthetics of Hyoseonssangmi, filial behavior–favorable change in fortune, ideological, the lower class, rid of humanity.

신태수

소속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소 : (701-751) 대구시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1차 110동 603호

전화번호 : (053) 810-7843 / 019-515-8879

전자우편 : djgigjg@daum.net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